

고창군, 명실상부 스포츠 관광도시

올 상반기 13개 대회 성공 개최
선수단 등 2만5000여명 방문
40여억원 지역경제 파급 효과
16개 팀 전지훈련 유치도



고창군에서 지난 5월 열린 '제22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 대회'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펼쳐보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올 상반기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해 40여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냈다.

군은 전국 단위 체육대회 5개, 도 단위 체육대회 1개, 군 단위 체육대회 13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모두 16개 팀의 전지훈련도 유치해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선수·입원은 물론, 학부모, 응원단의 발길이 이어졌다.

군은 각종 대회를 치르면서 2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고창군을 찾았으며, 40여억원 이상의 작·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월에는 '제3회 고창고인돌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개최됐다. 대회에는 모두 38개팀 7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5월에는 '제22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 대회'가 열려 3500여명의 선수들이 겨루기·격파·품세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고창군은 하반기에도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해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고 치를 계획이다. '고창북분재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한국대학

전국태권도대회', '고창선운산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고창고인돌 마라톤 대회' 등 각종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마케팅도 전개한다.

선운산 트릴라라이밍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고,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클라이밍 교실을 운영하는 등 스포츠와 지역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회의 경우 다

년 계약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스포츠 마케팅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고창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방문하는 체육인들과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해 세계유산도시 고창이 스포츠 관광의 1번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챌린지 열전

교통·재난 등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대결...초·중·고 15 팀 수상

남원시에서 열린 '제2회 SW·AI Challenge 대회'가 성료됐다. 전북SW미래채움사업의 하나로 열린 이번 대회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소프트웨어 인재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장이 됐다. 평가는 받았다.

21일 남원시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 대회에는 총 197명이 참가, 147명이 본선에 올라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들은 지난 15일~16일까지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초등부 '에너지절약-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개발', 중등부 '스마트시티-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교통문제, 재난안전, 주차문제 등 생활서비스 개발', 고등부는 '모두를 위한 기술-장애인,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는 접근성 높은 생활 편의 서비스 개발' 등의 주제로 코딩 구현과 발표가 이뤄졌다.

초등부 수상 학교는 ▲미래인재상(도지사상) 남원 태봉초 ▲창의특목상(도교육감상) 완주 태봉초 ▲재능기득상(남원시장상) 군산 신흥초 ▲희망채움상(전북테크노파크위원장상) 무주 적상초 ▲꿈채움상(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상, 플레이코딩대표상) 군산 풍문초, 남원 교통초 등이다.

중등부 수상교는 ▲미래인재상(도지사상) 익산 남성중 ▲창의특목상(도교육감상) 전주 온빛중 ▲재능기득상(남원시장상) 고창 영선중 ▲희망채움상(전북테크노파크위원장상) 전주 평화중 ▲꿈채움상(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상, 플레이코딩대표상) 남원 용성중, 익산 남성중이다.

고등부 수상교는 ▲미래인재상(도지사상) 익산 전북과학고 ▲창의특목상(도교육감상) 익산 전북기계공고 ▲재능기득상(남원시장상) 익산 전북과학고 ▲희망채움상(전북테크노파크위원장상) 익산 원광여고 ▲꿈채움상(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상, 플레이코딩대표상) 익산 전북제일고, 익산 전북과학고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의 근대문화유산인 '조양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옛도심에 있는 '조양관'을 복합문화공간 겸 카페로 리모델링해 문을 열었다.

1935년에 건축된 조양관은 고창읍에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 중 유일한 일본식 여관이다. 주거시설로는 보기 드문 가치를 보유했다고 평가받는 건물이다. 일식 시멘트 기와를 얹은 2층 지붕과 외벽은 목재로 마감됐다.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4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군은 조양관을 카페를 갖춘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시범운영을 위해 오픈했다. 메뉴부터 시음회까지 도시재생활동가들이 3개월기량을 준비

고창 근대문화유산 '조양관' 카페 변신

1935년 축조된 일본식 여관



복합문화공간 겸 카페로 문을 연 '조양관'. <고창군 제공>

고창군의 근대문화유산인 '조양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옛도심에 있는 '조양관'을 복합문화공간 겸 카페로 리모델링해 문을 열었다.

1935년에 건축된 조양관은 고창읍에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 중 유일한 일본식 여관이다. 주거시설로는 보기 드문 가치를 보유했다고 평가받는 건물이다. 일식 시멘트 기와를 얹은 2층 지붕과 외벽은 목재로 마감됐다.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4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군은 조양관을 카페를 갖춘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시범운영을 위해 오픈했다. 메뉴부터 시음회까지 도시재생활동가들이 3개월기량을 준비

해 오픈한 '옛도심 조양관'은 오는 10월 31일까지 10시부터 21시까지 상시(주말포함) 운영된다.

조양관은 고창군 옛도심지역의 첫 거점공간이다. 2021년 시작된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사업은 '옛도심 조양관' 거점시설을 시작으로 어울림센터, 음식치유장 등 거점공간으로 확장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중학생 역사 산교육 '중국 상해 문화탐방'

160명 대상 오늘부터 5박6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등 체험



정읍교육지원청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해외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한다. <정읍교육지원청 제공>

정읍교육지원청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해외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한다.

21일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에 따르면 정읍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상해와 연결 지역에서 해외역사문화탐방프로그램(사진)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2023년부터 정읍교육지원청과 정읍시가 함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대폭 증액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해외탐방은 2개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올바른 역사관 수립을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중국 상해 지역팀이 꾸려졌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 유적지를 체험하는 연결지역팀도 구성됐다.

학생들은 중국 현지의 금산량하 중학교를 방문해 상호 교류학습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등 문화교류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읍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대상 학생을 선발하고 모두 5차례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이 '해외역사문화탐방'을 단순한 여행이나 체험이 아닌 '학습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적극

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최용훈 교육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해외역사문화탐방은 정읍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과 건전한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관련 분야의 학력향상과 진로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s@kwangju.co.kr

정읍 여성단체, 결혼이민자 정착 돕는다

11가정과 결연 밀반찬 봉사 등

정읍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최근 여성 결혼이민자와 결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전북지역 성주류화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여성단체 회원은 결혼이민자 11가정(필리핀 6, 일본 2, 베트남 2, 캄보디아 1)과 결연해 이들이 한국에 잘 적응해 행복해 가정은 꾸릴

수 있도록 친정엄마 역할을 맡는다.

여성단체 회원은 결혼이민자 가정 간 결연을 시작으로 역량강화 교육(인권·성인지 감수성)과 결연자 간 개인적 친밀감을 위한 교류, 밀반찬 봉사 참여, 안부전화 등 정기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가족들이 행사,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참여 등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9월에는 1박2일 캠핑을 통해 가족 프로그램 행사, 운동회,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s@kwangju.co.kr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1 인종기간 | 2020.10.19 ~ 2024.10.18

대한민국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31129-중-63255호

동행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광주역앞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입원문의
062) **720-2000**